# ‘투타 밸런스’ KIA, KT·삼성 잡고 1위 탈환한다

타이거즈 전망대

## 개막 후 5승1패 승률 0.833
## 1위 한화에 1경기차 2위
## 7연패 KT·5연패 삼성 상대
## 양현종 시즌 첫 승 도전

KIA 타이거즈의 양현종이 2일 KT 위즈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로 나와 고영표와 마운드 대결을 벌인다. 〈KIA 타이거즈 제공〉

달라진 ‘뒷심’을 보여준 KIA 타이거즈가 선두 자리에 도전한다.

개막 이후 5승 1패, 0.833의 승률을 장식하고 있는 KIA는 새로운 한 주 KT 위즈와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한다.

KIA는 수원으로 가서 KT와 주중 3연전을 가진 뒤 안방으로 돌아와 삼성과 주말 3연전을 갖는다.

시즌 스타트를 잘 끊은 KIA는 초반 흐름이 좋지 않은 두 팀과의 만남에서 승수를 더하겠다는 각오다.

KIA는 롯데 자이언츠와 두산 베어스를 상대한 지난주 4승 1패를 기록했다. 롯데와의 3차전이 비로 취소됐지만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챙겼다. 두산과의 경기에서도 2승 1패, 위닝시리즈를 가져왔다.

4연승 질주 뒤 30일 경기에서 0-8 영봉패를 기록했지만 패배 후유증은 길지 않았다. 31일 곽빈 공략에 성공하면서 9-3 승리를 만들었다. 두산 그리고 곽빈에게 약했던 KIA는 첫 원정길에서 ‘천적’ 관계를 정리하고 지난해와 다른 뒷심으로 기대감을 키웠다.

7연승 질주에 성공한 1위 한화 이글스에 이어 1경기 차 2위. 개막에 맞춰 예열이 잘 된 방망이와 막강 필승조가 초반 흐름을 이끌고 있다.

이번 주 KIA가 만나는 상대들은 시즌 출발이 좋지 못했다.

KT는 올 시즌 8경기를 치르는 동안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면서 최하위에 자리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거침없이 달리고 있는 한화의 기세에 막혀 싹쓸이 3연패를 당하기도 했다.

8위에 자리하고 있는 삼성도 상황이 좋지 않다. 삼성은 5연패에 빠져있다. 연패 중간에는 12회 연장 혈투 끝 무승부도 있다. 삼성은 3월 27일 LG와의 잠실 원정에서 2-2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서 시즌 첫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체력 소모도 많았고, 결과도 좋지 못했다.

KIA는 탄탄한 불펜으로 뒷심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4연승 시간 KIA의 불펜은 자책점을 남기지 않으면서 ‘0’의 행진을 이어갔다. 두산과의 주말 두 경기에서 연이어 점수를 내주면서 불펜 평균자책점이 2.38로 올라갔지만, 10개 구단 중 가장 좋은 수치다.

타선의 고른 활약도 반갑다.

나성범과 황대인이 잇단 부상으로 1루와 우익수를 오가고 있는 이우성은 안정된 수비는 물론 뜨거운 방망이로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30일 두산전에서 3안타를 기록하는 등 시즌 타율이 0.409를 기록하고 있다.

31일 경기에서 1루수로 나섰던 서건창도 고향팀에서의 첫 안타를 시작으로 3안타 행진을 하면서 예열을 끝냈다.

하위 타순에서 김태군도 12타수 4안타, 타율 0.333을 기록하고 있는 등 개막에 맞춰 타자들의 페이스가 잘 올라왔다.

이제 김도영의 반등만 남았다.

박찬호와 테이블세터를 맡고 있는 김도영은 개막 후 6경기에서 26타수 4안타에 그치면서 0.154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볼넷은 골라내지 못했고 10개의 삼진이 남았다. 베이스 확대에 맞춰 ‘빠른 발’이 더 강력한 무기가 됐지만 출루율이 0.185에 머물면서 자신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타석에서의 조급함은 수비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김도영은 지난 29일 두산전에서 2개의 포구 실책을 기록하면서 아찔한 순간도 경험했다.

급할수록 돌아가는 여유가 필요하다. 김도영의 부진에도 타선이 전체적으로 잘 맞물려 움직이면서 KIA는 5승을 만들어냈다. 동료들을 믿고 차분하게 타격감을 끌어올리면서, 집중력 있는 수비를 보여줘야 한다.

선발진 스타트를 끊는 양현종에도 시선이 쏠린다.

양현종은 시범경기에서 장염으로 한 차례 등판밖에 소화하지 못했지만 26일 롯데와의 시즌 첫 등판에서 5.1이닝 1실점을 기록하면서 베테랑의 관록을 보여줬다.

양현종은 시즌 첫 승을 놓고 2일 KT 잠수함 고영표와 선발 맞대결을 갖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이정후-김하성 ‘코리안 대결’ 9번 더 본다

## 샌프란시스코-샌디에이고 개막시리즈 홈런 등 공·수 활약…6~8일 샌프란시스코 홈서 3연전

이정후(25·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본토 개막전이 열린 나흘을 ‘코리안 데이’로 만들었다.

한국시간으로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열린 MLB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이고의 본토 개막 4연전에서 이정후는 14타수 4안타(타율 0.286), 1홈런, 4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이정후는 4경기에서 삼진 2개를 당했지만, 볼넷 3개를 얻었다. 19번 타석에 들어서서 공 80개를 보는 동안 헛스윙은 단 2번만 하는 뛰어난 배트 컨트롤 능력도 과시했다.

서울에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개막 2연전에서 7타수 무안타에 그친 김하성은 샌프란시스코와 4연전에서는 15타수 6안타(타율 0.400), 1홈런, 3타점, 4득점, 1도루로 활약했다.

한국 야구팬들에게는 나흘 모두 의미 있는 날이었다.

이정후는 3월 29일 빅리그 데뷔전에서 3타수 1안타 1타점을 올리며 바람몰이를 예고했다.

30일에는 첫 멀티 히트(5타수 2안타 1타점)를 달성했고, 31일에는 8회 좌중간 담을 넘기는 빅리그 데뷔 홈런을 치는 등 4타수 1안타 2타점으로 활약했다.

4월 1일 4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이정후는 안타는 치지 못했지만(2타수 무안타), 볼넷 3개를 얻으며 뛰어난 선구안을 과시했다.

2023년 유틸리티 부문 골드 글러브를 수상하며 MLB가 인정하는 내야수로 우뚝 선 김하성의 타임라인도 화려했다.

서울 시리즈에서 무안타에 그쳤던 김하성은 3월 29일 본토 개막전에서 시즌 첫 안타(3타수 1안타)를 신고하더니, 30일에는 시즌 첫 멀티 히트(4타수 2안타)를 달성했다.

3월 31일에는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지만, 이정후의 안타성 타구 2개를 잡아내는 등 MLB 최정상급 유격수의 수비력을 뽐냈다.

4월 1일에는 시즌 첫 홈런을 작렬하며 4타수 3안타 3타점 3득점 1볼넷으로 맹활약했다.

샌프란시스코와 4연전을 치르는 동안 김하성의 시즌 타율은 0.273으로 올랐다.

경기 전후로 우정을 나누고, 그라운드 위에서는 양보 없는 대결을 펼친 이정후와 김하성은 잠시 떨어졌다가, 샌프란시스코로 장소를 옮겨 다시 맞붙는다.

이정후는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해 오타니 쇼헤이를 보유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방문 3연전(2~4일)을 벌인다.

김하성은 같은 기간(2~4일)에 홈 펫코파크에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맞이한다.

이정후와 김하성은 4월 5일 하루 휴식을 취하고, 6~8일 샌프란시스코의 홈 오라클 파크에서 3연전을 치른다.

내셔널리그(NL) 서부지구에 속한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이고는 2024시즌에 13번씩 맞대결한다.

4번의 대결에서 ‘야구의 모든 것’을 보여준 둘은 올 시즌 9차례 대결을 더 남겨뒀다.

/연합뉴스

# 전남 플라카 결승골 ‘홈 3연승’ 질주

## K리그2 천안시티FC에 1-0 승

전남 플라카가 지난 31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천안시티FC와의 K리그2 4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45분 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제공〉

전남드래곤즈가 플라카의 결승골로 ‘홈 3연승’을 달렸다.

전남은 지난 31일 광양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4 4라운드서 천안시티FC와의 경기에서 후반 45분 터진 플라카의 헤더로 1-0 승리를 거뒀다.

3월 9일 김포와의 홈 개막전에서 4-0 승리를 거뒀던 전남은 이번 승리로 안방에서 연승에 성공했다. 지난 24일 열린 강릉시민축구단과의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2라운드 경기 1-0 승리까지 더하면 ‘홈 3연승’이다.

이날 6개의 슈팅을 날리면서 3개의 유효슈팅을 만들었던 발디비아가 결정적인 순간 빛나는 조연이 됐다.

전남의 잇단 공세가 무위로 돌아가면서 0-0으로 후반전도 마무리됐다. 6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고, 기다렸던 전남의 골이 나왔다.

페널티박스 앞 왼쪽에서 발디비아가 문전으로 공을 올렸다. 골대 오른쪽에 있던 플라카가 공을 향해 뛰어들었고, 머리로 때린 공이 그대로 천안의 골망을 흔들었다.

정교한 패스와 강력한 헤더가 만들어낸 환상적인 골로 발디비아와 플라카는 각각 시즌 1호 도움과 득점을 기록했다.

전남은 이후 남은 시간을 실점 없이 지키면서 5005명의 관중 앞에서 승점 3점을 더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넬리 코다, LPGA 3연승…세계 1위 굳히기

## 포드 챔피언십 우승·이미향 3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넬리 코다(미국)의 기세가 무섭다.

코다는 1일 미국 애리조나주 길버트의 세빌 골프 앤드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LPGA 투어 포드 챔피언십(총상금 225만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7언더파 65타를 몰아쳐 최종 합계 20언더파 268타로 우승했다.

지난 25일 퍼힐스 박세리 챔피언십 제패에 이어 7일 만에 다시 정상을 차지한 코다는 이번 시즌 3승 고지에 올랐다.

코다는 시즌 개막전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공동 16위에 그쳤지만 이후 드라이브온 챔피언십과 퍼힐스 박세리 챔피언십에서 이어 이번 대회까지 출전한 3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했다.

3개 대회 연속 우승은 2016년 에리야 쭈타누깐(태국)이 요코하마 타이어 클래식, 킹스밀 챔피언십, 볼빅 챔피언십에서 내리 우승한 이후 8년 만이다.

쭈타누깐 이전에는 2013년 박인비, 2008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3연승을 달린 바 있다.

지난달 26일 되찾은 세계랭킹 1위 자리를 더 굳게 다진 코다는 상금, CNE 글로브 포인트, 올해의 선수 포인트에서도 선두를 질주했다.

한국 선수로는 이미향의 활약이 돋보였다.

이미향은 버디 5개를 잡아내며 4언더파 68타를 쳐 공동 3위(17언더파 271타)에 올랐다. 지난 2월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공동 3위 이후 시즌 두 번째 톱10 입상이다.

이미향은 한때 선두에 1타차까지 추격했지만 15번 홀(파4) 보기로 아쉬움을 남겼다. 3라운드에서 공동 선두에 올라 시즌 첫 우승의 기대를 부풀렸던 김효주는 11번 홀(파4) 더블보기로 무너지며 1언더파 71타를 적어내 공동 8위(16언더파 272타)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 ‘디펜딩 챔피언’ 광주대, 대학농구 ‘개막 2연승’

## 광주여대에 107-40 완승

‘디펜딩 챔피언’ 광주대가 2024 KUSF 대학농구 U-리그 여대부 경기에서 107득점을 폭발하며 개막 연승을 기록했다.

광주대는 지난 28일 광주대 체육관에서 열린 광주여대와의 리그 2차전 홈 개막전에서 107-40 완승을 거뒀다. 지난 20일 강원대전 78-45승리에 이은 연승이다.

광주대는 잇단 가로채기에 이은 속공과 외곽슛으로 1쿼터부터 43-6으로 격차를 벌렸다. 기세를 이어간 광주대는 ‘신생팀’ 광주여대를 상대로 67점 차로 승리했다.

공수에서 맹활약한 유이비가 12득점 13도움 8가로채기로 트리플 더블급 활약을 했고, 팀의 주포 양유정은 24득점 9리바운드를 기록했다.

임요원과 정채련도 각각 19득점 21리바운드, 15득점 5리바운드로 힘을 보탰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